기획

연구비 수혜실적 성대, 연대 절반 수준
강좌수 축소, 대형강의 증설 추세 지속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우리학교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해당항목 10위권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기 논란이 됐던 '대형강의'증가 추세는 이번 학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지난달 30일 공시된 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규모별 강좌수,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등 2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학교의 2013년 국제전문학술지(국외논문)에 게재된 1인당 논문수는 0.626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국내논문)에 게재된 1인당 논문수는 0.522편이었다. 이는 사립대학 평균(국외논문 0.318편, 국내논문 0.526편)이나 수도권대학 평균(국외논문 0.468편, 0.551편)에 견줬을 때 다소 우수한 결과지만 지난해 우리학교의 1인당 논문수(국외논문 0.63편, 국내논문 0.545편)보다는 모두 하락했다.

이런 1인당 논문수의 하락은 연구비 수혜실적과도 연관돼있다.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 항목 중 2013년 우리학교 교수 1인당 연구비는 8,700만 원으로 해당항목에서 상위 10위안에 속한 사립대학인 성균관대(1억 8,400만 원)나 연세대(1억 7,300만 원), 서강대(1억 4,900만 원) 등과 견줬을 때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연구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011년 371건의 연구에 247억 원을 지원하던 교내연구비는 2012년 41건에 165억 9,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3년 113억 1,000만 원으로 더 하락했다. 1인당 교내연구비로 환산할 경우 2011년 1,900만 원에서 2013년 950만 원으로 반토막으로 줄었다. 2013년 불거진 재정문제의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외연구비의 경우 2011년 1,010억 원에서 2012년 1,070억 원, 2013년 1,1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1인당 연구비 역시 7,200만 원 수준에서 7,75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대학들과의 격차는 상당했다. 성균관대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1억 6,400만 원, 연세대는 1억 6,50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연구성과에서 중시되고 있는 국외논문에서, 교원 1인당 각각 0.9편과 0.8편을 게재했다.

▲교육여건

'학생 규모별 강좌수'의 경우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강좌수는 줄고, 소형강의 축소-대형강의 확대 경향이 반복됐다. 2012학년도 2학기에는 4,062개의 강좌가 개설됐고, 이후 2013학년도 2학기 3,984개, 2014학년도 2학기 3,685개로 그 수가 줄고 있다.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의 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이번 학기 21.4%로 8.1%pt 낮아진 반면 대형강의(수강인원 50명 이상)의 비율은 18.9%에서 21.8%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임교원 1인당 강의담당 비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49.1%를 기록했다. 2012학년도 1학기 45.4%를 최저점으로 46%대에 머물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지난 학기 47.5%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2학년도 1학기 34.5%를 최고점으로 이번 학기 들어 31.4%로 낮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에서 제시했던 강의수 감축과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증가 계획과 일치한다. 때문에 단순히 올해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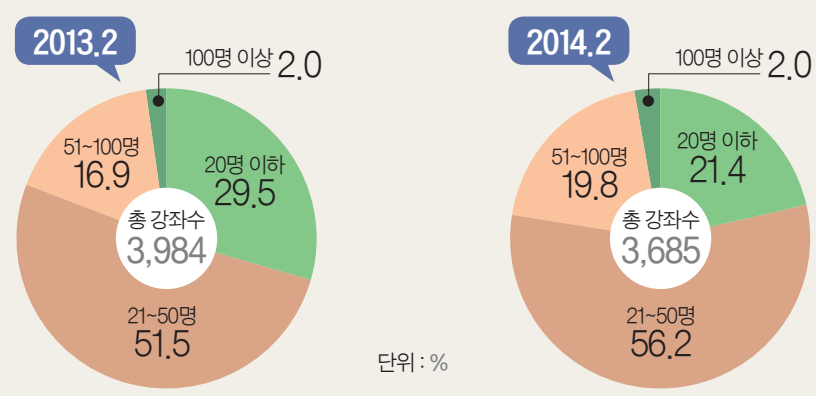
▲재정

앞서 살펴본 연구와 교육여건 영역의 변화양상은 재정과 연관돼 있다. 이번에 공시된 항목 중에는 재정상황과 연관된 것들도 있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경우 지난해 26.3%에서 올해 26.8%로 다소 늘었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매출액 역시 16억 2,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현재 대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대부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유추해볼 수 있는 내년 재정현황 관련 공시정보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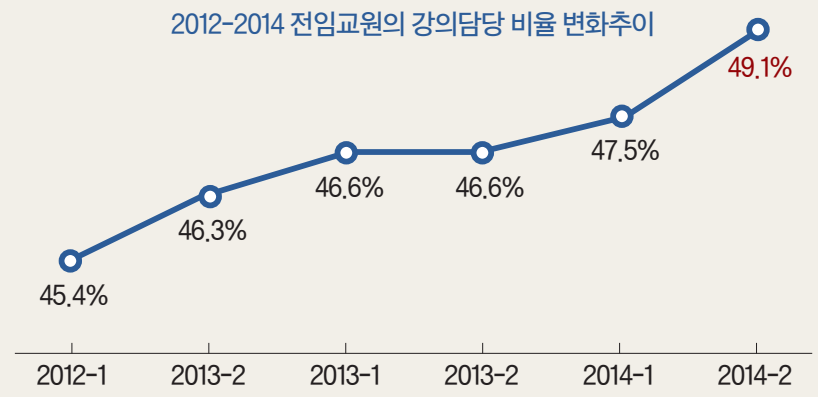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와 논문수

	1인당 교내연구비	1인당 교외연구비	1인당 국내논문수	1인당 국외논문수
성균관대	1,997만 원	1억 6,428만 원	0.4	0.9
연세대	747만 원	1억 6,576만 원	0.4	0.8
서강대	682만 원	1억 4,281만 원	0.6	0.5
고려대	979만 원	1억 3,650만 원	0.5	0.8
한양대	1,375만 원	1억 2703만 원	0.6	0.7
경희대	948만 원	7,759만 원	0.5	0.6

총 강좌수와 강좌 수강인원 규모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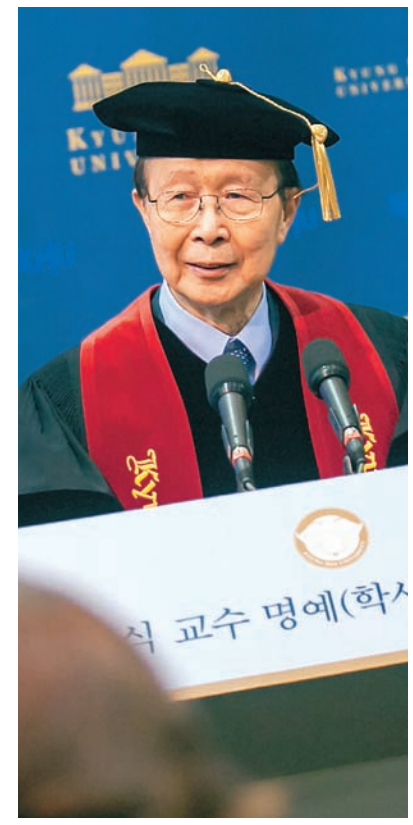
2012~2014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변화추이



2011~2014 도서관 예산 추이

	총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011	1.5%	20만 9,100원
2012	1.4%	20만 6.600원
2013	1.3%	20만 8,000원
2014	1.0%	15만 원

▶1면에서 이어짐



지난 10월 31일 네오누리관에서 이정식 교수의 명예학사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명예학사학위 수여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세계적 석학인 이정식 교수와 같은 분이 명예학사학위 수여를 수락해주신데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다시 한 번 존경한다"라고 말했다.

연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이 교수는 졸업가운을 입고 연단에 섰다. 모국에서 60년 만에 맞는 졸업식 행사에 감격에 젖은 듯 그는 몇 번이나 목이 잠겼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신흥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 교수는 그가 이룬 모든 공을 학교에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은 인생의 준비과정이다. 100세 시대인 만큼 4년을 충실히 보내 그 기초를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충실한 대학생활에 대해 "전공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연구역량을 강화해 'Toward Global eminence'를 달성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역경을 딛고 성취한 그의 '졸업식'이 진정으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연설 내내 자신의 성취를 타인의 공으로 돌리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빛난 겸손의 미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한 번 그의 졸업을 축하하는 존경의 박수를 전한다.

2014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5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자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2014년 10월 6일(월)~11월 17일(월) 17:00
■ 대 상: 교수, 교직원
■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pr@khu.ac.kr
■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2014년 12월 中 〈Magnolia 2014-1부 목련회의〉시 시상
■ 문 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Towards Global Eminence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10. 6(월)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담→강의평가→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 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창닫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지원과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2014-2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 기타 자세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나.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4. 11. 10(월) ~ 12.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빙서류 원본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서류만 접수가능)

7.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4-2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공학인증(ABEEK)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람.
(☎. 031-201-3401~5)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제40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조인원 총장과 함께 하는 Book Talk

- 대 담 : 조인원 총장, 김민웅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미래정치의 회상'
—공감과 연결의 또 다른 지평을 찾아서
- 일 시 : 2014. 11. 13(목) 16:00
- 장 소 :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특별 프로그램 : 독서토론회 40회 기념 전시회
▶ 2014. 11. 5 (수) ~ 11. 13 (목)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대담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별이 탄생하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과학의 시대에 종교적 영성은 이미 낡은 이야기다?
경쟁과 협력, 어느 것이 진화의 비밀일까?
세상을 바꾼 책들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은 정치, 행복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의 실체입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것에서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만일 그 미래로부터 지금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확실한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과 함께 하는 Book Talk, 함께 기쁜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 문의 : 중앙도서관 열람과
T. 02-961-0074, 0078 E-mail. khsd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